

전북을 '친환경 바이오소재 허브'로

도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개최... '육성 방안 연구' 서 제시된 기본전략·추진과제 대응방안 논의

미래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 육성 전략으로 농생명 등 전북의 강점을 살려 '친환경 바이오소재 산업의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전북도는 8일 '전라북도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본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전북이 바이오소재(유용 미생물, 농생명·천연물 소재, 바이오화합소재 등)를 기반으로 국내 바이오 거점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농생명 바이오의 고부가 그린바이오로 전환, 바이오 화학의 기초기반을 토대로 바이오 미 래신소재 확장, 바이오와 IT의 융합을 통한 바이오 라이프케어의 바이오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 3대 특화분야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개 특화분야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벤처기업이 육성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검증 및 R&D 등 기초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제정과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실시, 바이오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3개 특화분야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바이오 관련 위원회의 역할 조정·통합 등을 통해 사업 발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검사기관 지정, 연구중심병원 지정,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벤처 등 기초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도 바이오산업 특화분야별 로 사업추진 타당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주요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으로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도내 농생명·해양 등의 천연자원을 대상으로 생명기술을 활용해 차별성 있는 신제품 육성과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동물 등의 적극적인 질병치료, 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생산해 바이오소재 산업을 전북도가 먼저 선점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 구체화 등을 통해 제19대 대선공약 반영과 2018년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정기총회 8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송하진 도지사, 이광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제32차 정기 총회를 가졌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의 유공자 시상 장면

국가예산 및 공모 사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홍 정무부지사는 "바이오산업은 농생명, IT, 나노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의 융복합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분야로 바이오산업 세계 시장이 연평균 5.7%씩 성장하고 있다"며, "2019년이면 4,273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가 유용미생물, 농생명, 바이오화합소재 등 바이오소재기반 국내 바이오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단·중 장기적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큰징거미새우 내수면 양식 부각

도 수산기술연구소, 현장기술교육 실시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큰징거미새우 양식기술에 대해 도내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큰징거미새우는 담수역인 연못, 운하, 강하구에 서식하는 새우로 육질이 좋고 맛이 뛰어나 주로 고급식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6~9개월 만에 최대 300~400g까지 성장이 가능하고 1kg당 4~6만원을 호가하는 고부가 품종이며, 최근 내수면 양식에

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대체품종으로 내수면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관심을 반영하듯 큰징거미새우 양식협회 전북지회 등 많은 어업인들이 양식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민물고기시험장 양식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양식기술에 대해 직접 문의하는 등 도내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주기적인 기술교류 및 사용과정별 현장교육(5월)을 별도로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도, 내년 체전 대비 특교세 20억 확보

익산시 가로환경 정비에 투자

전북도는 지난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18년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은 전국체전에 대비해 개·폐회식과 마라톤 등 주요 경기가 개최되는 익산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투자한다.

주요 도로 90km에 대한 아스콘 재포장, 도로변 경계석 및 보도블록 등 가로환경을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 임원 등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30만 익산시민들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사업은 총 93억원이 소요되

고 국비 지원이 없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축소가 불가피했는데, 연초부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전국체전이 국가적 행사를 강력히 건의해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에 특별교부세를 적극 활용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전국체전은 2018년 10월 중 익산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47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며, 3만 7,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지방 자치·분권 강화 헌법개정 건의문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8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한 황헌 도의장 등은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지방의회를 자치단체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시켜 놓았고, 중앙정부의 형식적, 소극적 태도가 더해져 성숙한 지방자치가 저해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뿌리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법령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제정, 재원구조재편,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축소와 지방의 고유사무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의 인사 및 조직구성 자율성 부여 등 불합리한 통치 구조를 재정립하고 분권을 확립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헌 전북도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나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에타 통과 박차

도, 기재부 점검회의 권고사항을 기획보고서 수정·보완 이달 말까지 제출

전북도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에타 심사 중에 있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에타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사업'은 익산시 혁신산단 융복합벨트에 총 2,018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에코융합첨단연구원 주관 하에 FTI시험연구원 등 대학과 기업들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 기업역량강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물, 불, 열, 충격, 전자파,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의 소재 및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사

업이다. 에타 통과 후 사업추진 시 국가첨단산업 고부가가치화로 새동력을 마련하고,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산업 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사업'의 에타 통과를 위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에타 점검회의 시 권고사항에 대해 기획보고서를 수정·보완해 이달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수정·보완사항은 국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한 일자리 모델 반영과 지역산업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술개발 R&D사업 기획 구성 등이다.

전북도가 수정·보완해 제출한 '안전

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수정 기획보고서는 에타조사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진 검토와 기획재정부 점검회의를 거쳐 최종 에타 통과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도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이 2018년부터 국가예산이 반영돼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 에타통과를 목표로 에타 기획위원들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을 방문해 협의·실득 등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사업이 반드시 에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전북도가 안전보호 제품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 배수시설 추가 변경

3.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읍시장